

# 「璿源系譜紀略」肅宗39年本考\*

A Study on the *Sonwon-kyebo-kiryak* Sukjong's 39th Year Edition

尹仁鉉(Yoon, In-Hyun)\*\*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사적 배경과 간행 동기 | <참고문헌> |
| 3. 숙종28년본과의 차이점 |        |

## < 초 록 >

본고는 「璿源系譜紀略」 숙종39년본 간행의 역사적 배경과 그 동기를 파악하고, 숙종28년본을 기본으로 얼마나 추가하고 수정한 판본인가를 밝힌 것이다. 숙종39년에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숙종에게 존호를 올리게 되었고, 洛昌君과 韓山副正의 상소를 계기로 延祚君의 책임 하에 「璿源系譜紀略」 숙종39년본을 속간하게 된 것이다. 완질본이 장서각에 12부, 규장각에 2부, 도합 14부가 있으며, 이본합질로는 장서각에 제1책이 6권, 제2책이 5권이 있다. 숙종28년본을 기본으로 숙종39년본은 자손록은 수정하지 않고 어첩만 수정하였는데, 전체 198면 중 187면은 변화가 없다. 新板으로 찍은 것이 5면, 改版이 4면, 補空이 1면, 再刻板이 1면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 외에 187면 중에는 숙종7년본의 구판 3면이 추가되어 있다.

要語 : 선원계보기략, 선원보략, 목판인쇄술, 왕족, 족보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 대진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yoonih@daejin.ac.kr)

접수일: 2006년 5월 12일 최초심사일: 2006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06년 6월 16일

<ABSTRAC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swer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about the *Sonwon-kyebo-kiryak* Sukjong's 39th Year Edition ; a)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ts publication, b) the motives of publishing this book, and c) the changes from and additions to its previous edition, Sukjong's 28th Year Edition.

In 1713, the 3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Sukjong, a title of honour was offered to him in celebration of his reign of forty years. Following Nakchang-gun(洛昌君) and Hansan-boojeong(韓山副正)'s proposal for the publishing, *Sonwon-kyebo-kiryak* Sukjong's 39th Year Edition got to be published under the supervision of Yeonin-gun(延礪君). Fourteen copies of a complete edition are left, twelve of which are currently held by Jangseogak and two by Kyujanggak.

This edition was partially modified and extended from Sukjong's 28th Year Edition. Eocheop(御牒: records of the main Royal family genealogy) was modified and enlarged, but there was no change in Jasonlok(子孫錄: records of collateral descendants).

Out of the total of 198 woodblocks, there was no change in 187, while eleven were either newly carved or modified as follows: 1) five were newly made, 2) four were modified, 3) one was partially modified and filled the blank, 4) one was recarved. Besides, three taken from its Sukjong's 7th Year Edition were included among those 187 woodblocks.

Key words : *Sonwon-kyebo-kiryak*, *Sonwon-boiryak*, wood block printing, royal family, genealogy

## 1. 緒言

숙종 연간에 간행된 「璿源系譜紀略」은 모두 7 종이다. 숙종5년본, 7년본, 26년본, 28년본, 39년본, 45년본, 46년본 등이 그것이다.

시간본인 숙종5년본은 간행이 완료되자 곧장 오류가 지적되어, 이미 반사되었던 것을 거두어들이는 판본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현재 3 건이 전존되고 있다. 숙종7년본은 오류가 많았던 숙종5년본을 완전히 수정하여 새로이 간행한 완성본으로 현재 4 건이 전존되고 있다.<sup>1)</sup>

숙종26년본은 제1책이 2건, 제2책이 1건으로 아주 드물게 현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간행 후 반사된 것을 오류가 있다고 환수하여 다른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총 2 책 총 190 張 중 68 張分을 그대로 사용하고 74 張分을 보공하여 사용하고 48 張分을 새로이 판각하여 숙종28년본으로 완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 숙종28년본은 숙종26년본의 訛誤厘整 改刊本이다.<sup>2)</sup>

숙종45년본은 반사되자마자 그대로 모두 改張修正되어 숙종46년본으로 완성되었다.<sup>3)</sup> 숙종 연간의 7 종 중 그 간행과정에 대한 考究가 미결된 것은 숙종39년본이다.

여타의 6종은 모두 開刊儀軌나 校正廳儀軌가 있어서 그 간행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알 수 있으나, 이 숙종39년본은 이러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종3년본의 의궤에서는 “경진년(숙종26, 1700)에 합부이정한 후 기해년(숙종45, 1719)에 비로소 중간한 즉 그 간격이 20년이다.”<sup>4)</sup>라는 구절이 있어 숙종39년본은 존재

1) 拙稿, “「璿源系譜紀略」 開刊過程과 始刊本 分析,” 『書誌學研究』 제14집(1997. 12), 371-375; 拙稿, “肅宗朝 「璿源系譜紀略」 板本考 -판본선별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129-167.

2) 拙稿, “「璿源系譜紀略」 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211-234.

3) 拙稿, “「璿源系譜紀略」 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2000. 12), 151-153.

4) 宗簿寺,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藏2-3847, M35-542~543) 張1. 壬寅 六月十九日條. “本寺啓曰 … 雖以前例言之 庚辰年 合部厘正後 己亥年 始爲重刊 則其間內是二十年也”

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璿源系譜紀略」의 總敍에 의하면,<sup>5)</sup> 肅宗39년 윤5월에 숙종 즉위 40년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린 것을 추가로 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에 이 판본이 간행될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 후, 이 판본의 전존현황을 알아보고, 이 판본을 기준으로 기존의 최근판인 숙종28년본과 대비하면서 그 구성과 수록범위 및 판각의 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사적 배경과 간행동기

숙종28년본이 간행된 이후 숙종39년본이 간행되기까지 약 10년 동안, 역사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가? 숙종 治世 약 46년간에 대하여 붕당간의 당쟁은 격렬하였으나 왕권은 강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먼저 숙종의 즉위 이전부터 숙종28년본이 간행된 시기까지를 살펴보면 그 정치적 흐름은 이렇다. 숙종의 부친이 되는 현종의 治世에 효종비 인선왕후(현종의 모후)가 승하하자 이에 대하여 당시 생존해 있던 조대비(인조의 계비)는 복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예론<sup>6)</sup>이 있은 후, 남인이 득세한 상황에서 숙종은 즉위하였다. 숙종은 원년에 송시열을 유배시켰고, 당쟁의 폐해를 실감하여 5년에는 예론을 중단하지 않으면 역물로 다스린다고 선포하였다.

숙종6년(1680)에는 허건의 역모사건으로 남인이 失勢하고, 송시열이 서용되었다가 숙종9년에 서인은 노론 소론으로 분당되었다, 노론의 정권 하에서 숙종15년

5)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李王職 增修]. 木板. 1931跋. (藏書閣 2-1039<M35-2001>) 冊1. 張1. 總敍 “三十九年癸巳 夏閏五月 重校補刊 以卽位四十年 上尊號之追載也.”

6) 쉽게 말하여 현종의 어머니(효종 비)가 별세하셨는데 할머니(인조 비)는 어떻게 상례를 치르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현종의 이 할머니는 인조의 계비 장열왕후로서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왕후보다 오히려 6년 年下였다. 이는 인조의 비 인열왕후가 서거한 후 인조와는 무려 29세의 차이가 나는 장열왕후를 계비로 맞이하였기 때문이다. 이 장열왕후 조씨 즉 조대비는 아들이 되는 효종보다 5년 年下였으며, 손자가 되는 현종의 재위 시에 본의가 아니게 예론의 대상이 되었고, 증손이 되는 숙종의 재위 14년까지 생존하였다.

(1689)에 소의 장씨가 회빈으로 승서되고 세자책봉 문제를 계기로 노론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는 기사환국이 이루어졌다. 왕자 昀이 세자로 책봉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책봉된 상황에 있다가 숙종20년에 갑술옥사를 겪으면서 장희빈과 남인이 몰락하고 소론파가 등용되었다. 이후 숙종은 26년(1700)에 탕평을 지시하였다.<sup>7)</sup>

숙종27년 6월에 소론의 영수였던 崔錫鼎이 영의정이 되고, 8월에는 숙종계비 인현왕후가 서거하고, 9월 이후로 장희재 일당을 숙청하는가 하면 장희빈과 동평군을 사사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숙종26년본이 숙종7년본 이후 약 20년간 동안에 발생한 국가 의례 결과에 따른 기록이나 기존 기록의 수정, 신생 자손의 기록 추가이거나 수정을 위해 교정청을 설치하여 간행하였으나, 보름이 지나기도 전에 金鎮龜의 지적을 계기로, 교정청을 설치하지 않고 중부시에서 숙종28년본으로 수정 간행하는 사이에 발생하였던 것이다.<sup>8)</sup> 당시 崔錫鼎은 영의정으로서 장희빈의 처형을 반대하다가 유배된 바 있다.

이상에서 숙종의 즉위 이전부터 숙종28년본이 간행된 시기까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이제 숙종28년본이 간행된 이후 숙종39년본이 간행되기 전까지 정치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숙종29년 1월에 당시 예조판서였던 金鎮龜가 世宗, 中宗, 宣祖의 예를 들면서 숙종의 즉위 30주년을 기념하여 陳賀하는 일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숙종은 예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이 불편하다고 거절하였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료들 사이에서 존호를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의가 우세하였는데, 그 해 3월에 金鎮龜의 아우인 金鎮圭가 홀로 반대하였고 이를 숙종이 옳다고 함으로써<sup>10)</sup> 일단 존호를 올리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잠잠해졌다.

숙종29년(1703) 2월에 崔錫鼎이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가<sup>11)</sup> 8월에는 申琬이 영의정으로 교체되었다.<sup>12)</sup> 숙종30년 6월에는 병을 핑계로 사직했다가<sup>13)</sup> 숙종30

7) 拙稿, “肅宗朝「璿源系譜紀略」板本考,” 『書誌學研究』 제13집(1997. 6), 131-133. 참조  
8) 拙稿, “「璿源系譜紀略」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233. 참조  
9)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이하 생략)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1월 10일  
10)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3월 4일  
1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2월 11일

년 9월 26일 복귀하고, 숙종31년 2월에 체임되었으며, 최석정은 숙종31년 4월에 서<sup>14)</sup> 숙종36년 4월까지 다시 영의정의 직을 맡았다.<sup>15)</sup> 약 7년 동안 소론인 이 두 사람이 영의정의 직을 수행하면서 당쟁의 논의 속에서 각각 수차례 사직과 복직을 거듭하였다.

숙종29년에 존호에 대한 논의가 있던 지 약 2년이 지난 숙종 31년 2월에 다시 숙종에게 尊號를 올리고 稱慶하기를 청하는 益山 幼學 蘇德器의 상소가 있는<sup>16)</sup> 후 왕세자와 靈順君이 각각 상소를 올리는가 하면, 檜原君 등은 王家의 무궁한 복을 비는 祈恩을 청하기도 하였다.<sup>17)</sup> 右議政 李濡는 왕세자가 稱慶하겠다는 상소에 대하여 숙종의 윤허를 청했으나 이 또한 거절하였다.<sup>18)</sup>

그 다음 날에도 漢城參軍 成揆憲이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는<sup>19)</sup> 등 이에 대한 상소가 연이었으며, 왕세자가 2차 3차에 걸쳐 淸경을 청하고 연잉군도 淸경을 청하는 등 이에 대한 상소도 연이었다. 하지만 존호를 올리는 이 일을 부당하게 여기는 신료들도 없지 않았으며 숙종도 옳게 여기지 않아서, 결국은 존호를 올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進賀는 마지못해 허락하였다.<sup>20)</sup> 이후에도 존호를 올리는 데에 대한 찬반의 상소는 당분간 계속되었다.<sup>21)</sup>

9월말부터 숙종이 병이 생겨 고생한 탓인지 10월 29일에는 갑자기 예조에 명하여 왕위를 물려주려하니 그 절목을 만들라고 하였다.<sup>22)</sup> 이 때문에 왕세자를 비롯하여 三司와 대소 신료들의 禪位不可 상소가 빗발쳤다.<sup>23)</sup>

12)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8월 6일  
13)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0년 6월 24일  
14)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4월 13일  
15)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4월 27일  
1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2월 6일  
17)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2월 12일  
18)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2월 13일  
19)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2월 14일  
20)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2월 19일  
2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2월 30일  
22)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10월 29일  
23)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11월 1-2일

숙종32년 5월에 忠淸道 儒生 林溥가 22명과 연명하여 尹拯을 두둔하고 시세가 倫常을 잃었음을 피력하면서 ‘신사년에 동궁을 모해한다는 말이 죄인 尹姓의 供招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하여<sup>24)</sup> 숙종33년 1월에 그가 죽기<sup>25)</sup>까지 조정은 이에 대한 신료들의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숙종32년 8월에 숙종 재위30년을 기념하였는데, 참여자 대상의 직위를 한정하여 인정전에서 進宴하고 通明殿에서 內宴을 행하였다.<sup>26)</sup> 이후 다시 존호를 올리는 논의가 다시 발생하여 조정이 다시 한번 슬렁거렸다.

숙종35년에는 2월 16일 成均館 齋任 李秉鼎 등이 崔錫鼎이 지은 「禮記類編」에 대하여 宸嚴(임금의 위엄)을 干冒하였다고 논박한<sup>27)</sup> 후 이에 대한 논쟁은 1년을 넘도록 계속되었으며, 숙종36년 3월에 그 판본을 헐어버리고 尹會를 삭탈관작하고<sup>28)</sup> 이미 반사되었던 것도 회수하여 불태우게 했다.<sup>29)</sup> 뿐만 아니라 최석정에 대한 배척 상소가 계속되더니<sup>30)</sup> 파직에 이르게 되었다.<sup>31)</sup> 이는 소론의 失勢를 의미하며 이후 노론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숙종36년 8월에 尊號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된 것은 안동의 金南甲과 金華重의 상소에 이은 嶺南 儒生 呂鳳舉 등 80여 명이 상소를 하였고,<sup>32)</sup> 9월에 儒生 權碩經 등 300여 명이 연명하여 상소하였다. 모든 상소가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존호를 올려야 한다는 논지였는데, 숙종은 모두 거절하였다. 이들 상소자들은 모두 남인이었다.<sup>33)</sup>

약 6개월간 잠잠하더니 숙종37년 3월에 전라도 유생 洪履範 등 223인이 尊號를 올릴 것을 상소하였는데 이 또한 그 저의가 나쁘다 하여 홍이범을 유배시켰

24)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2년 5월 29일

25)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3년 1월 4일

2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2년 8월 25일, 8월 27일, 8월 28일

27)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5년 2월 16일

28)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3월 13일

29)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3월 15일

30)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3월 29일, 4월 13일, 4월 20일

3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4월 27일

32)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8월 28일

33)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6년 9월 26일

다.<sup>34)</sup> 게다가 進士 李蕃定등 100여 명이 홍이범의 상소에 대하여 그 내용이 옳지 못하다고 아뢰니 숙종이 이를 옳다고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였다.<sup>35)</sup> 이에 존호를 올리는 일은 다시 잠잠했다.

숙종39년이 되자 즉위 40년을 경축하는 稱慶을 행하고 尊號을 올리자는 실이 조정에 분분하여 영의정 李濡을 비롯한 대신들이 주장하였는데, 숙종은 존호를 올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단언하고 稱慶만 행하되 陳賀에 한하고 進宴은 하지 말라 하였다.<sup>36)</sup> 이어서 약 열흘 동안에 승지 신심, 판부사 조상우, 대신들, 종친들, 세자, 연잉군, 兩司, 내관이 각각 상소를 하고 다시 세자가 상소하였으며, 왕자와 종친들도 다시 상소함으로써 숙종39년 1월 17일에 비로소 존호를 올리는 일을 윤택하였다.<sup>37)</sup>

이에 그 날로 당장 예조에서는 尊崇都監의 堂上官과 郎廳을 차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행하게 해달라고 啓請하였고, 영의정 李濡는 大提學을 차출하여 大禮儀節을 講定하게 하도록 건의하였다.<sup>38)</sup> 그리고는 영의정은 다시 前例를 찾아보기 위하여 실록고출을 건의하고<sup>39)</sup> 大臣과 2品 이상의 관원들이 賓廳에 모여 大殿 즉 숙종의 徽號는 ‘顯義光倫睿聖英烈’, 永昭殿(인경왕후)은 ‘光烈’, 敬寧殿(인현왕후)은 ‘孝敬’, 中宮殿 즉 후일의 인원왕후는 ‘惠順’으로 각각 尊號를 議定하여 올렸다.<sup>40)</sup>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인경왕후와 인현왕후의 위패를 각각 고쳐쓰고<sup>41)</sup> 마침내 숙종은 그 해 3월 9일에 崇政殿에 나아가 존호를 받았다.<sup>42)</sup>

숙종39년 3월 14일 洛昌君과 韓山副正 등이 상소하여 「濔源譜牒」을 續刊하여 尊號는 물론이고 십여 년 동안 신지 못한 변동 사항을 追書하기를 청하고,

---

34)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7년 3월 22일  
 35)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7년 4월 17일  
 3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1월 5일  
 37)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1월 6일, 1월 9일, 1월 10일, 1월 11일, 1월 12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1월 17일  
 38)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1월 17일  
 39)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1월 20일  
 40)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1월 21일  
 4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2월 21일  
 42)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3월 9일

蒐輯한 책자를 올려 宗簿寺가 考證하여 출판하도록 하되 大제학이 跋文을 짓도록 하였다.<sup>43)</sup> 후일에 완성된 발문의 내용을 보면 延祔君의 책임 하에 이 「璿源系譜紀略」 숙종39년본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44)</sup>

숙종39년 윤5월 15일에 중부사에서 이미 「璿源系譜紀略」을 고치는 작업이 다 끝나고 이미 판각도 마쳐서 일부를 인쇄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跋文이 도착하지 않아서 大제학이 跋文을 속히 지어서 보내도록 해 달라고 임금께 건의하였고,<sup>45)</sup> 숙종39년 8월 23일에 봉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한<sup>46)</sup> 것으로 보아 이들 기간 내에 완성되었음에 틀림없다. 總敎에 의하면 숙종39년 윤5월로 되어 있다.

한편 숙종29년 12월에 지평 이유민이,<sup>47)</sup> 숙종31년에는 幼學 崔光宇가,<sup>48)</sup> 숙종33년 11월에는 侍讀官 李世最가 각각 봉당의 폐단을 진언하였으며,<sup>49)</sup> 숙종34년 2월에는 숙종이 대신과 備局의 신하들을引进한 자리에서 朝廷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黨議가 매우 심하다고 질책한 바 있으며,<sup>50)</sup> 숙종34년 12월에는 掌令 趙錫周가 봉당의 폐해에 대하여 상소하였고,<sup>51)</sup> 숙종35년 1월에 숙종은 신하들의 상소에 黨同伐異하는 논의는 결코 공정한 마음이 아니라고 지적했으며<sup>52)</sup> 숙종37년 4월에 副校理 洪致中이 봉당을 타파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sup>53)</sup> 등을 보아 숙종29년부터 숙종39년까지 약 10 년간도 봉당의 폐해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기간에 왕족과 관련된 행사로 「璿源系譜紀略」에 수록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는 숙종과 그의 비에 올린 존호, 명빈박씨의 아들인 왕자

43)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9년 3월 14일

44) 「璿源系譜紀略」 숙종39년본 跋文 “... 命下本寺臣 延祔君等 覆奏施行 而又令臣 紀其事於後”

45) <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이하 생략) 「승정원일기」 숙종39년 윤5월15일

46) 「승정원일기」 숙종39년 8월 23일

47)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12월 25일

48)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1년 9월 1일

49)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3년 11월 4일

50)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4년 2월 20일

51)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4년 12월 26일

52)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5년 1월 24일

53)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7년 4월 18일

李田을 延齡君으로 삼은 사실,<sup>54)</sup> 세자빈의 관례,<sup>55)</sup> 연잉군의 혼례<sup>56)</sup> 등이 산견된다.

요컨대 숙종은 즉위전부터 있어왔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탕평책을 늘 생각해왔으며, 숙종28년본 이후 숙종39년본이 간행되기까지 약 10년간 중 약 7년은 소론의 정권장악에서 노론과의 대립되던 시기였고 마지막 약 3년간은 노론이 득세한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숙종은 지속적으로 당론의 폐단을 인식하면서 신료들을 견제하였던 것이다. 특히 재위29년부터 즉위 30년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리는 일에 왕세자를 비롯한 왕자와 신료 그리고 幼學까지 상소로 건의하였으나 10년 동안 단호히 거절하였다. 그러나 재위 39년에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존호를 올리게 허락했고, 급기야 숙종39년 3월에 洛昌君과 韓山副正의 상소를 계기로 연잉군의 책임 하에 「璿源系譜紀略」을 속간하게 된 것이다.

### 3. 숙종28년본과의 차이점

#### 3.1 판본의 전존현황

숙종39년본에 관련이 있는 목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3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1건 외에는 없는 것으로 필자는 조사해 놓고 있다. 이들을 하나씩 확인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가 있다.

- 1) 璿源系譜紀略(2-972)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39(1713)]  
 3卷2冊 ……(생략)  
 ---- 同書6部

---

54)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9월 3일  
 55)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29년 11월 18일  
 56) 「조선왕조실록」 숙종실록 30년 2월 21일

이것은 장서각의 목록으로 숙종39년본이 6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표지의 레이블에 기재된 기호에 따라 살펴보면 A2-1 坤은 숙종7년본, A2-2 乾은 숙종39년본의 제1책, B2-1은 숙종39년본의 제2책, B2-2는 숙종28년본의 제1책, C2-1, C2-2 / E2-1, E2-2 / F2-1, F2-2는 모두 숙종39년본으로 각각 제1책과 제2책이 서로 바뀌어 있으며, D2-1은 숙종39년본의 제2책이고 D2-2는 숙종5년본이다. 즉 숙종39년본은 제1책과 제2책이 바뀌어 있는 완질본 3부와 이본합질 속에 있는 제1책 1 건과 제2책 2 건이 (2-972)에 들어 있다.

## 2) 璿源系譜紀略(2-967)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26(1700)]

3卷2冊 ……(생략)

---- 同書9部

이것은 장서각의 목록으로 이에 따르면 숙종26년본이 9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A2-1, A2-2 / B2-1, B2-2 / C2-1, C2-2 / D2-1, D2-2 / E2-1, E2-2 / F2-1, F2-2 / G2-1, G2-2 / I2-1, I2-2 등 8 부는 확인 결과, 숙종26년본이 아닌 숙종28년본의 완질본이었으며, 나머지 H2-1, H2-2 1 부가 완질본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H2-1은 숙종28년본 제1책이고 H2-2는 숙종39년본 제2책이다. 다시 말해 (2-967)은 숙종26년본으로 같은 책 9부가 있는 것으로 편목되어 있으나, 8 부가 숙종28년본이고, 1 부가 숙종28년본과 숙종39년본의 이본합질이다. 즉 숙종39년본은 H2-2가 제2책으로 1책이 (2-976)에 들어 있다.

## 3) 璿源系譜紀略(2-971)

宗簿寺(朝鮮)編. 木版. [肅宗 26(1700)跋]

2冊. ……(생략)

---- 同書23部

이것도 장서각의 목록으로 이에 따르면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고 숙종 26년의 跋文이 있는 2책 완질본이 23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G2-1, G2-2

/ J2-1, J2-2 / L2-1, L2-2 / M2-1, M2-2 / O2-1, O2-2 / P2-1, P2-2 / Q2-1, Q2-2 등 7부는 숙종28년본 완질본이며, B2-1, B2-2 / C2-1, C2-2 / D2-1, D2-2 / E2-1, E2-2 / H2-1, H2-2 / K2-1, K2-2 / R2-1, R2-2 / U2-1, U2-2 / V2-1, V2-2 등 9부가 숙종39년본 완질본이다.

A2-1, A2-2 / F2-1, F2-2 등 2부는 각각 제1책이 숙종26년본, 제2책이 숙종39년본이며, I2-1, I2-2 1부는 제1책은 숙종28년본, 제2책은 숙종39년본이며, N2-1, N2-2 / S2-1, S2-2 / T2-1, T2-2 / W2-1, W2-2 등 4부는 각각 제1책이 숙종39년본, 제2책이 숙종28년본이다.

다시 말해 숙종39년본은 완질본 9부와 이분합질본에 제1책이 4 책, 제2책이 3책이 포함되어 있다.

#### 4) 璿源系譜紀略(中宗 ~ 肅宗)

宗簿寺(朝鮮)編. [肅宗 28(1702)]

3卷2冊 ……(생략)

<奎 8723, 8724, 8748, 8755, 8756>

이것은 규장각의 목록으로 숙종28년본이 5 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규8724, 규8749, 규8756 등 3 부는 숙종28년본이며, 규8723과 규8748 등 2 부는 숙종39년본이다.

따라서 숙종39년본은 그 완질본이 장서각의 (2-972)에 3 부, (2-971)에 9 부, 규장각의 규8723, 규8748 등 2 부로 14 부가 있으며, 이분합질본으로 장서각에 제1책이 6건, 제2책이 5 건이 있다.

### 3.2 숙종39년본의 숙종28년본과의 비교

숙종39년본은 숙종26년본과 숙종28년본과 마찬가지로 2 책 완질본이다. 즉 2책 완질본은 이들 3 중에 불과하다. 숙종28년이 간행된 후 숙종39년본이 간행되기까지는 약 10년의 간격이 있는데 어첩과 자손록을 모두 수정 증보하였는가 궁금하다.<sup>57)</sup>

### 3.2.1 속종39년본의 구성과 수록범위

肅宗39年本의 구성과 수록범위를 보면 아래와 같다.

5>58) 속39(1713)	4567	12/3	123	3권2책	
제1책	----- [出: 藏 2-972 A2-2]				
是, 自, 世, 列徽, 列大, 譜例, 譜圖, 中, 內, 外, 是, 跋, 仁, 內, 尊, 己 <sup>59)</sup>					
‘璿源系譜紀略凡例’	----	14項			: 張1- 3
‘璿源先系’	-----	始祖 李 翰 - 18世 穆祖			
‘列聖繼序之圖’	-----	穆祖 - 主上(肅宗)			: 張1- 2
‘璿源世系’	-----	穆祖 - 主上(肅宗)			: 張1- 31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	中宗자손록 - 元宗자손록 (天 - 藏)			: 張1-24
‘璿源系譜紀略 卷之二’	--	仁祖자손록 - 主上자손록 (閔 - 薑)			: 張1-40
					小計 100 張
제2책	----- [出: 藏 2-967 A2-2]				
‘璿源系譜紀略 卷之三’	---	樂善君澂 - 金鼎運/子 (海 - 常)			: 張1-88
‘璿源系譜紀略 跋’	-----	金錫胄 跋			: 張1- 3
‘璿源系譜紀略 跋’	-----	吳道一 跋			: 張1- 4
‘璿源系譜紀略 跋’	-----	宋相琦 跋			: 張1- 3
					小計 98 張 計 198 張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책은 범례 3 張, ‘璿源先系’ 1 張 만, ‘列聖繼序之圖’ 만 張, ‘璿源世系’ 31 張,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24 張, ‘璿源系譜紀略 卷之二’ 40 張으로 모두 100 張이며, 제2책은 璿源系譜紀略 卷之三 88 張과 발문 10 張을 합하여 98 張으로 이루어져서 全2冊 총 198 張이다. 다시 말해 제1책은 100 張, 제2책은 98 張으로 총 198 張으로 완성된 것이다. 즉 권책의 외형은 속종28년본과

57) 拙稿, 「선원계보기략」 경종3년본 간행과정고. Journal of Korean Studies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Vol.7 (October 2005) p.163 참조. 예컨대 속종46년본이 간행된 이후 경종3년본이 나오기까지 그 기간이 약 3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종3년본을 간행할 적에도 처음에는 자손록은 그대로 두고 어첩만 수정하려고 하였다가 결국은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손록까지 수정하여 간행하였다.

58) 「璿源系譜紀略」이 간행되기 시작하여 5번째로 간행된 판본임을 나타낸다.

59) 타본과의 비교를 위해 범례의 머릿 글자를 1자, 필요에 따라서는 2자를 따온 것이다. 모두 16개 항목이다.

비교하여 동일한 3卷 2책 완질본이지만, 숙종28년본은 ‘凡例’가 2 張에 비해 숙종39년본은 ‘凡例’가 3 張으로 증가했고, 璿源世系는 30 張에서 31 張으로 증가하여 제1책은 2장이 증가했으며, 제2책은 숙종5년본과 숙종7년본을 위한 김석주의 발문 3 張과 숙종39년본을 위한 송상기의 발문 3 장이 증가하여 도합 8 장이 증가하였다. 이를 각권의 張次와 비교하여 일목요연하게 표화하면 <표 1>과 같다.<sup>60)</sup>

<표 1> 「璿源系譜紀略」 숙종39년본 면장수 구성

		제 1 책				제 2 책														
凡例	璿源先系	列聖繼序之圖	璿源系譜紀略											跋文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張數 또는 張次	3 張	1 張 半	3 1 張	1	2	3	4	1	2	3	4	1	2	3	4	5	6	7	8	1 0 張
				天	地	玄	黃	閏	餘	成	歲	海	鹹	河	淡	鱗	潛	羽	翔	
				5	6	7	8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宇	宙	洪	荒	律	呂	調	陽	龍	師	火	帝	鳥	官	人	皇	
				9	10	11	12	9	10	11	12	17	18	19	20	21	22	23	24	
				日	月	盈	昃	雲	騰	致	雨	始	制	文	字	乃	服	衣	裳	
				13	14	15	16	13	14	15	16	25	26	27	28	29	30	31	32	
				辰	宿	列	張	露	結	爲	霜	推	位	讓	國	有	虞	陶	唐	
				17	18	19	20	17	18	19	20	33	34	35	36	37	38	39	40	
				寒	來	晷	往	金	生	麗	水	弔	民	伐	罪	周	發	殷	湯	
				21	22	23	24	21	22	23	24	41	42	43	44	45	46	47	48	
				秋	收	冬	藏	玉	出	崑	岡	坐	朝	問	道	垂	拱	平	章	
								25	26	27	28	49	50	51	52	53	54	55	56	
								劍	號	巨	闕	愛	育	黎	首	臣	伏	戎	羌	
								29	30	31	32	57	58	59	60	61	62	63	64	
								珠	稱	夜	光	遐	邇	壹	體	率	賓	歸	王	
								33	34	35	36	65	66	67	68	69	70	71	72	
								果	珍	李	奈	鳴	鳳	在	樹	白	駒	食	場	
								37	38	39	40	73	74	75	76	77	78	79	80	
								采	重	芥	薑	化	被	草	木	糲	及	萬	方	
								81	82	83	84	85	86	87	88					
								蓋	此	身	髮	四	大	五	常					

60) 이 ‘선원계보기략’의 張次는 卷別로 版心에 숫자로 기재한 외에 수록된 인물끼리 참조표시를 하기 위해 판심의 우측상단 欄外에 千字文을 기재하고 있다.

범례, 선원선계, 열성계서지도, 선원세계, 선원계보기략, 발문의 순서로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2.1.1 범례

범례는 숙종28년본에는 14 개 항목을 2 張에 실었는데 숙종39년본에는 16 개 항목을 3 張으로 늘리면서 실었다. 第1張은 구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第2張과 第3張은 다시 판각하였다. 추가된 내용은 2 개 항목인데, 그 첫째는 “一. 존숭하여 예행을 치룬 후 보첩에 임금의 존호를 기재하고 인경왕후 인현왕후의 추상존호와 왕비전하의 존호도 아울러 모두 기재하되 후손은 임금의 명에 따라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는다. 改張한 부분의 내용은 품의를 거쳐 고쳐 신는다.”<sup>61)</sup> 그 둘째는 “一. 기미년(숙종5, 1679)에 이 책자를 처음 만들 때의 발문과 경진년(숙종26, 1700) 修改할 때의 발문을 품의를 거쳐서 함께 실어 후일에 참고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이 내용이 곧 숙종39년본이 숙종28년본의 차이점을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 숙종39년본의 특징은 기존에 간행된 판본별로 각각의 범례 마지막 항목에 주쌍행으로 ‘以上己未所錄’, ‘以上辛酉所錄’, ‘以上壬午所錄’, ‘以上癸巳所錄’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 판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완질본이라는 가정 아래 「璿源系譜紀略」 전반기 판본을 선별하는 직관법의 제 1 요소이다.

### 3.2.1.2 선원선계

선원선계는 조선의 개국왕인 태조를 기준으로 그의 고조위가 되는 목조 이상의 조상을 기록한 것이다. 즉 璿系 李氏는 本貫이 全州이며, 新羅時代에 司空을 지낸 李翰을 始祖로 하여 18 世孫인 穆祖까지 그 사이 17 代에 해당하는 祖上들

61) 「璿源系譜紀略」 숙종39년본 凡例 “一 尊崇禮行後 譜牒中 紀載 當宁尊號 仁敬王后 仁顯王后 追上尊號 及 王妃殿下尊號 並一體紀載 支裔 依聖教姑不添錄 所改張內所錄 則稟旨改錄”

의 아주 간략한 기록이다. 1 張 반을 차지하고 있다. 마지막 반 장은 항상 열성계서 지도와 같은 張을 이루고 있어서 열성계서지도의 변화에 따라 판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숙종39년본의 경우는 열성계서지도의 변화를 補空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목판을 사용하지 않았다.

### 3.2.1.3 열성계서지도

열성계서지도는 大統을 바로잡은 것으로 承統된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兄弟가 繼序된 경우는 쌍행으로 배열하여 昭穆을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인데, 숙종28년본에는 숙종을 ‘今 上殿下萬萬歲’라 표현했으나 숙종39년본에서는 ‘顯義光倫睿聖 英烈主上殿下萬萬歲’라 표현하고 있다.

### 3.2.1.4 선원세계

선원세계는 열성계서지도에 나타난 역대 왕에 대한 기록으로서 숙종28년본은 30 張, 숙종39년본은 31 張인데 제28 張까지는 같은 목판을 사용하였다. 전자의 제29, 30 張은 버리고 후자의 제29, 30, 31 張을 완전히 改板하였다. 그 수정 또는 추가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항목별로 상행은 숙종28년본, 하행은 숙종39년본이며, 단행인 것은 숙종28년에는 없는 내용을 숙종39년본에 새로이 추가한 것이다.

- 1) 현종 비 명성왕후 가례사항  
行嘉禮于於義洞本宮  
行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 2) 현종의 숙종에게로의 계승사항  
嗣今 上殿下  
嗣 顯義光倫睿聖英烈主上殿下
- 3) 숙종의 명칭사항  
今上殿下諱( 순 )字( 明普 )

顯義光倫睿聖英烈主上殿下諱(ㄴ)字(明普)

4) 숙종의 어진사항

有御眞二本奉安于江華長寧殿璿源殿(昌德宮大內)

5) 숙종비 인경왕후 명칭사항

妃仁敬王后金氏

妃光烈仁敬王后金氏

6) 숙종비 인경왕후 가례사항

行嘉禮于於義洞本宮

行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7) 숙종비 인경왕후 추상휘호사항

今上三十九年癸巳追上徽號光烈

8) 숙종계비 인현왕후 명칭사항

繼妃仁顯王后閔氏(籍驪興)

繼妃孝敬仁顯王后閔氏(籍驪興)

9) 숙종계비 인현왕후 가례사항

行嘉禮于於義洞本宮

行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10) 숙종계비 인현왕후 추상휘호사항

今上三十九年癸巳追上徽號孝敬

11) 숙종계비 김씨 관련 사항

繼妃惠順殿下金氏(籍慶州) 領敦寧府事慶恩府院君柱臣女 丁卯(今上十三年)九月二十九日甲辰誕降于順化坊私第 壬午冊封王妃行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12) 숙종 자녀사항 - 연잉군

四男延祊君吟(淑嬪崔氏出)

四男延祊君吟(淑嬪崔氏出○娶達城徐氏都事宗悌女)

13) 숙종 자녀사항 - 연령군

六男仁壽

六男延齡君田 (명嬪朴氏出○娶商山金氏都事東弼女)

14) 세자빈의 所自出사향

嬪沈氏(籍青松) 主簿浩女

嬪沈氏(籍青松) 令贈右議浩女

15) 세자빈 가례사향

行嘉禮于於義洞本宮

行嘉禮于於義洞本宮(孝宗潛邸)

이상의 변동 사정을 요약하면 첫째, 顯宗비 明聖王后金氏, 숙종비 인경왕후, 숙종계비 인현왕후, 당시 세자빈의 嘉禮 장소인 ‘於義洞本宮’에 대하여 숙종28년 본에는 없던 쌍행주 ‘孝宗潛邸’를 追記하였다. 숙종의 존호, 인경왕후, 인현왕후, 당시 왕후의 휘호를 追記하였다. 둘째, 숙종의 어진사향을 추기하였다. 셋째, 당시 왕후 김씨의 명칭, 소자출, 탄강, 책봉, 가례 사향을 추기하였다. 넷째, 숙종 자녀 연잉군의 혼인사향과 연령군의 명칭사향을 추기하였다. 다섯째, 당시 세자빈의 소자출 사향을 수정하였다.

3.2.1.5 선원계보기략

‘璿源系譜紀略’은 관련 문헌 속에서 子孫錄이라고 칭하는 부분이다. 5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卷之一’은 제1 단에 中宗, 제2 단에 中宗의 宗支 1世인 仁宗, 明宗의 항렬을 기록하고, 제3 단에는 中宗의 종지 2世인 宣祖의 항렬을 기록하고, 제4단에는 그 3世인 元宗<sup>62)</sup>의 항렬, 제5 단은 그 4世인 仁祖의 항렬까지 각각 수록하고 있다.

‘卷之二’는 제1단에 ‘卷之一’의 제5 단에 수록되었던 仁祖의 항렬이 다시 수록

62) 元宗은 光海君의 폐위에 따라 仁祖(元宗의 長子)가 즉위함으로써 추존된 왕으로 선조의 제5왕자 定遠君이다.

한 후, 제2단 이하에는 차례로 제5 단까지 孝宗, 顯宗, 肅宗, 왕세자의 항렬까지를 수록하여, 추존왕인 元宗부터 正宮所誕인 永昌大君과 貞明公主 그리고 後宮所出의 제1왕자 臨海君부터 제7왕자 仁城君의 자손까지를 수록하였다.

‘卷之三’은 宣祖의 제8왕자인 義昌君부터 제13왕자 寧城君까지와 10 翁主의 자손을 수록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宣祖의 자녀 (14男 11女) 및 손자 외손자

宣祖																								
5 元宗	永昌大君	貞明公主	1 臨海君	2 光海君	3 義安君	4 信城君	6 順和君	7 仁城君	8 義昌君	9 慶昌君	10 暉	11 慶平君	12 仁興君	13 寧城君	貞慎翁主	貞惠翁主	貞淑翁主	貞仁翁主	貞安翁主	貞徽翁主	貞善翁主	貞正翁主	貞謹翁主	貞和翁主
仁祖大王	子 洪萬容	繼子 陽寧君	子 貞	繼子 綾原大君	繼子 平雲君	繼子 海安君	子 海平君	繼子 樂善君	子 昌原君	子 嶺陽君	子 朝普君	子 增原君	子 徐貞履	子 尹暉	子 申冕	子 洪寅	子 朴世喬	子 柳淦	子 權瑛	繼子 柳命全	繼子 金世泌	繼子 權億	繼子 權億	

결과적으로 중종을 기준으로 宗支는 4 世까지 外孫은 1 世까지로 제1권에 수록되었고, 다음으로는 宣祖를 기준으로 宗支와 外孫은 간행당시까지의 자손은 모두 제2권과 제3권에 나누어 실었는데 제2권에는 정궁소탄의 모두와 후궁소출의 왕자 중 제7왕자까지, 제3권에는 후궁소출 제8왕자부터 모든 옹주까지의 자손은 빠뜨림 없이 수록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개략적으로 표화하면 <표 3>과 같다.<sup>63)</sup> <표 3>의 최하단에 ‘卷之一’은 복선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큰 그림에서 복선으로 테두리가 부분이 ‘卷之一’의 수록범위를 나타낸다. ‘卷之二’와 ‘卷之三’도 각각 ‘卷之一’에 비교하여 바탕색의 농담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수록범위를 나타낸다.

63) <표 3> 중에서 ‘卷之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하단에 굵은 실선의 직사각형 부분 즉 ‘子 南夏明, 子 韓德鳳, 子 金春澤’이 들어 있는 부분은 따로 ‘卷之四’를 만들어 거기에 수록해야 할 내용이지만 그 分量이 미약하여 ‘卷之三’에 덧붙여 놓고 있다는 점이다.

숙종28년본과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판각 사항은 약간의 변동이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3.2.2 숙종28년본에 대비한 숙종39년본의 판각 변화'에서 다루고자 한다.

<표 3> 「瓊源系譜紀略」숙종39년본 '瓊源系譜紀略'의 各卷 수록범위

		中宗																											
仁宗	明宗												孝惠公主	懿惠公主	孝順公主	敬顯公主	仁順公主	福城君	海安君	錦原君	永陽君	德陽君	鳳城君	德興大院君	惠順翁主	貞順翁主	孝靜翁主	淑靜翁主	靜慎翁主
	宣祖												女尹百源	子韓淵	子申士植	女崔禮秀	庶子島川君	繼子河陵君	繼子興寧君	繼子文城君	繼子文城君	河原君	繼子金虎秀	女尹曉	子趙天啓	子宋惟毅	子具思謹	子韓瑛	
元宗		永昌大君	貞明公主	臨海君	...	信城君	仁城君	義昌君	...	貞惠翁主	...	貞和翁主																	
仁祖	綾昌大君	子洪萬容	繼子陽寧君	女安弘量	海平君	樂善君	子尹輝	繼子鄭德徽																					
孝宗	繼子麟坪大君	子洪重箕	子益豐君	女韓以成	繼子行光善副正	臨陽君	女金益兼	子權處經																					
顯宗	福寧君	子洪錫輔	子林原君	繼子韓斗相	杞安都正	海豐都正	子金萬基	繼子權世熊																					
今上	子煥	女	子廷樺	子韓宗老	女		子金鍾龜																						
王世子	女南夏明子			子韓德鳳			子金香澤																						

卷之一    卷之二    卷之三

### 3.2.1.6 발문

숙종5년본이 존재하고 있지만 숙종7년본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폐기되었어야 판본이고, 숙종26년본이 전존되고 있지만 숙종28년본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폐기 대상 판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숙종7년본, 숙종28년본, 숙종39년본이 완성본들이다. 숙종7년본의 발문은 김석주가 작성하였고, 숙종28년본의 발문은 오도일이 작성하였으며, 숙종39년본의 발문은 송상기가 작성하였다.

숙종7년본은 김석주의 발문만 있고, 숙종28년본은 오도일의 발문만 있다. 이러한 추이라면 숙종39년본은 송상기의 발문만 있어야 한다. 하지만 범례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발문을 모두 실어서 후일에 참고가 되게 한 것이다. 이후로 前例가 되었다.

### 3.2.2 숙종28년본에 對比한 숙종39년본의 판각 변화

숙종28년본과 숙종39년본은 외형적 형태사항이 같다. 즉 전체의 張數는 8張의 차이에 지나지 않고 약 10년의 간격에 어쩔만 수정하였다면 추가될 사항이 많지 않았을 것이기에 숙종39년본을 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숙종28년본의 판본을 그대로 다시 사용했을 것이며, 약간 補空을 해서 활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며, 아니면 전혀 새로운 판을 새기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에 <표 1>을 바탕으로 하여 숙종28년본과 숙종39년본을 대조하여 판각 상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추출하였는데, 이때 목판을 원래의 것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는 두 판본을 눈으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므로, 각 張마다 魚尾의 모양새가 다른 점, 광곽이나 계선의 절단부분, 글자의 모양, 광곽의 두께 변화 등을 살펴 꼭 같은 張은 물론하고 補空이 있더라도 그 목판은 같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0장의 판목 중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표현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속종28년본에 대비한 속종39년본의 판각 변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2	3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81	82	83	84	85	86	87	88	1	2	3	1	2	3	4	1	2	3		

1번 新板    2번 改版    3번 補空    4번 再刻板    5번 속7舊板    6번 속28舊板

<표 4>는 하나의 사각형에 위 숫자는 198장 全冊 즉 제1책과 제2책을 통틀은 각 張 일련번호이며 아래 숫자는 각 부문마다의 개별적 張次이다. 위 부분의 일련번호 1, 2, 3에 해당하는 아랫부분의 처음 1, 2, 3은 제1책의 ‘凡例’ 3 張, 그 다음 일련번호 4, 5에 해당하는 1, 2는 제1책의 ‘璿源先系와 列聖繼序之圖’ 2 張, 그 다음 일련번호 6에서 36에 해당하는 1에서 31은 제1책의 ‘璿源世系’ 31 張, 그 다음 일련번호 37에서 60에 해당하는 1에서 24는 제1책의 ‘璿源系譜紀略 卷之一’ 24 張, 그 다음의 일련번호 61에서 100에 해당하는 1에서 40은 제1책의 ‘璿源系譜紀略 卷之二’ 40 張이고, 그 다음의 일련번호 101에서 188에 해당하는 1에서 88은 제2책 璿源系譜紀略 卷之三 88 張, 마지막 일련번호 189에서

191에 해당하는 1, 2, 3은 숙종7년본의 김석주 跋文 3 張, 일련번호 192에서 195에 해당하는 1, 2, 3, 4는 숙종28년본의 오도일 跋文 4 張, 일련번호 196에서 198에 해당하는 1, 2, 3은 숙종39년본의 송상기 3 張발문이다.

그리고 1번은 숙종28년본에는 없던 새로운 내용을 새로운 목판에 판각하여 찍은 張으로 新板을 사용했고, 2번은 숙종28년본의 기존 내용에 숙종39년본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목판에 판각하여 찍은 張으로 改版한 것이다. 3번은 숙종28년본에 사용하였던 목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내용은 補空하여 찍은 張이고, 4번은 숙종28년본의 내용과 똑 같지만, 파손 또는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다시 판각하여 찍은 張으로 再刻板이라 할 수 있으며, 5번은 숙종7년본을 그대로, 6번은 숙종28년본을 그대로 숙종39년본에 사용하여 찍은 張으로 舊板이다.

요컨대 숙종39년본을 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숙종28년본의 木板을 거의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총 198 면 중 11 면을 제외한 187 면을 舊板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 3면은 숙종7년본, 나머지 184 면은 숙종28년본이다. 新板으로 찍은 것은 5 면에 불과하고, 구판의 내용과 신판의 내용이 합쳐진 改版이 4 면, 補空을 하여 활용한 것이 1 면, 구판과 내용이 동일한 再刻板이 1 면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자손들은 수정하지 않고 어쩔만 수정한 것이다.

#### 4. 結 言

숙종은 즉위전부터 있어왔던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탕평책을 늘 생각해왔으며, 숙종28년본 이후 숙종39년본이 간행되기까지 약 10년간은 약 7년은 소론의 정권장악에서 노론과의 대립되던 시기였고 마지막 약 3년간은 노론이 득세한 상태였다. 그러한 가운데 숙종은 지속적으로 당론의 폐단을 인식하면서 신료들을 견제하였던 것이다.

특히 숙종29년부터 즉위 30년을 기념하여 존호를 올리는 일에 왕세자를 비롯

한 왕자와 신료 그리고 幼學까지 상소로 건의하였으나 10년 동안 단호히 거절하여 왔다. 그러나 숙종 39년에 즉위 40주년 기념으로 존호를 올리게 허락했고, 급기야 숙종39년 3월에 洛昌君과 韓山副正의 상소를 계기로 延祜君의 책임 하에 「璿源系譜紀略」을 속간하게 된 것이다.

숙종39년본은 그 완질본이 장서각의 (2-972)에 3 부, (2-971)에 9 부, 규장각의 규8723, 규8748 등 2 부로 14 부가 있으며, 이본합질본으로 장서각에 제1책이 6건, 제2책이 5건이 있다.

특히 이 숙종39년본의 특징은 기존에 간행된 판본별로 각각의 마지막 항목에 주쌍행으로 ‘以上己未所錄’, ‘以上辛酉所錄’, ‘以上壬午所錄’, ‘以上癸巳所錄’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이 판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완질본이라는 가정 아래 「璿源系譜紀略」 전반기 판본을 선별하는 직관법의 제 1 요소이다.

숙종39년본을 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숙종28년본의 木板을 거의 그대로 다시 사용하여 총 198 면 중 11 면을 제외한 187 면을 舊板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 3면은 숙종7년본, 나머지 184 면은 숙종28년본이다. 新板으로 찍은 것은 5 면에 불과하고, 구판의 내용과 신판의 내용이 합쳐진 改版이 4 면, 補空을 하여 활용한 것이 1 면, 구판과 내용이 동일한 再刻板이 1 면이다. 즉 자손록은 수정하지 않고 어첩만 수정한 것이다.

##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景宗 癸卯年 璿源譜略校正廳儀軌」宗簿寺編. (藏2-3847, M35-542~543)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李王職 增修]. 木板. 1931跋. (藏書閣 2-1039 <M35-2001>).

「璿源譜略儀軌」宗簿寺編. 藏書閣 2-3840(M35-542)

「璿源譜略修正時臚錄」宗簿寺編. 奎章閣 奎12985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藏書閣 2-972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藏書閣 2-971

「璿源系譜紀略」宗簿寺編. 藏書閣 2-967

拙稿. 「璿源系譜紀略」開刊過程과 始刊本 分析. 書誌學研究 제14집 (1997. 12), 363-410.

拙稿. “肅宗朝 「璿源系譜紀略」板本考 -판본선별을 중심으로-.” 書誌學研究 제13집 (1997. 6), 129-167.

拙稿. 「璿源系譜紀略」肅宗46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0집 (2000. 12), 123-155.

拙稿. 「璿源系譜紀略」肅宗28年本 刊行過程考. 書誌學研究 제27집 (2004. 6), 211-234.

拙稿. 「선원계보기략」경중3년본 간행과정고. Journal of Korean Studies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Vol.7 (October 2005), 163.



к с і